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2023년 9월 13일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Patrimony 컬렉션 최초로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주얼리 버전을 선보이며 마치 빛을 머금은 듯한 눈부신 광채 속에서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자아냅니다.
- 다이얼 전체에는 스노우 세팅 기법을 활용하여 다이아몬드가 파베 세팅되어 있습니다.
- 손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은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상하이 Watches and Wonders에서 베일을 벗은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시계가 새로운 매력을 자랑합니다. 눈부신 빛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며 호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는 37mm의 슬림한 화이트 골드 실루엣에는 769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계 전체에 우아한 장식을 더한 Patrimony 컬렉션 최초의 주얼리 시계는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SC/3와 함께 정확하게 시간을 표시합니다.

Patrimony 컬렉션의 절제되고 차분한 감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Patrimony가 최초로 주얼리 코드와 만나 화려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슬림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부터 스노우 세팅 기법이 적용된 다이얼에 이르기까지 시계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이 모델은 손목 움직임에 따라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은은한 빛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Patrimony 셀프 와인딩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1950년대 바세론 콘스탄틴이 개발했던 클래식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이 타임피스에는 2004년부터 Patrimony 컬렉션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한 조화로운 비율과 심플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렬한 쇼맨십이 돋보이며 클래식한 작품인 주얼리 시계의 진귀하고도 고급스러운 매력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2023년 봄에 공개된 새로운 비율의 케이스와 섬세한 라운드 크라운이 돋보이는 디자인의 Patrimony 셀프 와인딩 모델의 발자취를 이어 새로이 선보이는 이번 모델은 고급스러운 켈세팅과 함께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며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세련된 매력을 자아냅니다. 우아한 37mm 케이스의 모든 부분에서 빛이 반사되어 화려하게 반짝이고, 슬림한 케이스 미들에는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으며, 러그뿐 아니라 베젤에도 섬세하게 켈세팅되어 다이얼 주변에서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쳐 보입니다. Patrimony 셀프 와인딩 모델에는 총 769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며, 여기에는 관능적인 곡선을 그리는 크라운 위에 자리잡은 싱글 로즈 컷 다이아몬드가 포함됩니다.

다이얼의 눈부신 광채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경의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선별하여 다이얼의 메탈 부분을 최대한 커버하는 까다로운 기술에 속하는 스노우 세팅 기법을 활용하여 420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세팅됩니다. Patrimony 셀프 와인딩 모델에 탑재되는 완벽한 돔형 다이얼에 완벽한 표면과 눈부신 광채를 연출하기 위해 켈세팅 장인이 탁월한 기교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도전 과제로 손꼽혔습니다. 각 타임피스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자아내는 디자인에서 진귀한 메탈의 흔적은 사라지고, 빛의 효과와 손목 움직임에 따라 다채롭고도 화려한 광채가 펼쳐집니다. 슬림한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 위를 마찬가지로 화이트 골드로 완성된 섬세한 나뭇잎형 핸즈가 지나가는 모습은 화려한 이미지에 더욱 우아한 매력을 더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나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Patrimony 셀프 와인딩은 은은한 빛을 자아내는 블루 엘레게이터 레더 스트랩과 함께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모델인 만큼 손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 의상, 컬러에 맞추어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바쉐론 콘스탄틴은 미학적 우아함과 기술적 세련미가 반영된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인하우스 칼리버 2460 SC/3은 높은 정확도 및 신뢰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간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밸런스 와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아워, 미닛, 세컨드 핸즈라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에서는 원형 그레인 처리된 메인플레이트의 양면, 꼬뜨 드 제네브 패턴 장식과 핸드 챔퍼링 처리가 돋보이는 브릿지, 세심한 수공 기묘세 로터와 같이 무브먼트에 적용된 탁월한 마감 기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VACHERON  
2110331  
SWISS MADE  
VACHERON CONSTANTIN  
4116U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요약

1950년대의 유려한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의 Patrimony 컬렉션이 최초로 주얼리 모델과 함께 지평을 넓혀갑니다. 이 모델은 Patrimony 컬렉션의 심플한 디자인과 메종이 선보인 가장 강렬한 하이 주얼리 작품의 대담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타임피스입니다. 상하이 Watches and Wonders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Patrimony 셀프 와인딩 시계는 어느 면에서나 눈부신 광채가 돋보이며, 37mm 화이트 골드 다이얼과 케이스에는 769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화려한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이얼의

메탈을 최대한으로 숨길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선별하는 과정이 포함된 까다롭고도 정교한 스노우 세팅을 활용하여 420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장식했습니다. 케이스백 오픈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SC/3에서도 이처럼 화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주 빛 광택이 감도는 블루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은 편리한 인터체인저를 시스템에 갖추어 시계에 더욱 풍성한 매력을 더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를 조합한 다채로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셸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셸모니와의 인터뷰

1/ 바쉐론 콘스탄틴은 최근 Egerie 컬렉션과 함께 하이 주얼리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Patrimony 컬렉션에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Patrimony 컬렉션에서는 직경 36.5mm의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베젤 또는 다이얼에 섬세한 세팅을 더한 제품만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종에서는 컬렉션의 우아한 분위기를 살려 세팅 면에서 더욱 대담한 버전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이얼에 스노우 세팅을 적용하여 여기저기서 화려한 빛이 반짝이는 진귀한 디자인으로 독특한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최초의 손목시계 모델이 등장했던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 시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정 시계 라인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특히 아르 데코 시대를 포함하여 어떤 시대든 쥘세팅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장인 기술로 모든 컬렉션을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2/ 특정 성별을 겨냥하여 출시되는 타임피스인가요?

요즘은 특정 성별에 한정된 시계를 논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형적으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는 케이스 사이즈가 남성 혹은 여성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바쉐론 콘스탄틴도 대부분의 매뉴팩처와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소개하는 시점에는 남성 및 여성 시계를 구분짓기는 합니다. 그 점에서 어떤 전통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하지만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 구분 또한 점진적으로 사라지리라 봅니다.

3/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같은 주얼리 시계를 선보이며 어떤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혹은 고객의 취향과 열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출시하는 제품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은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디자인 부서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스와 다이얼, 심지어 브레이슬릿 전체에 쥘세팅하는 타임피스는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는 스타일입니다. 1920년대에 화려한 주얼리 시계를 선보였던 바쉐론 콘스탄틴과 같이 100여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종은 이같은 유형의 타임피스를 통해 주얼리 시계 분야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워치메이킹 측면의 접근법과 주얼리의 특성 중 한 가지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죠. Patrimony 컬렉션의 신제품은 워치메이킹과 주얼리를 조화롭게 선보이는 것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는 물론 메종이 극복해내야 할 도전 과제이자, 주얼리이면서도 시계의 역할에 충실한 주얼리 시계를 원하는 현재의 수요에 가장 잘 부응하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 PATRIMONY 셀프 와인딩 주얼리

## 새로운 주얼리 시그니처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매력

필수적인 요소인 정확함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 Patrimony self-winding Jewellery

Reference	4116U-000G-B909
Calibre	2460 SC/3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6.2 mm (1 <sup>1</sup> / <sub>4</sub> "") diameter, 3.6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 per hour) 182 components 27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Indications	Hours, minutes and center seconds
Case	18K white gold case set with 331 round-cut diamonds 37 mm diameter, 9.25 mm thick Crown set with 1 rose-cut diamond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18K white gold dial set with 420 round-cut diamonds Convex external zone 18K white gold applied hour-markers and hour & minutes hands
Strap	Night blue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calf inner shell, square scales, with self-interchangeable system integrated
Buckle	18K white gold ardillon buckle set with 17 round-cut diamonds
Total diamond-setting	769 round-cut diamonds, for a total weight of approx. 5.81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